

건강 칼럼

하지정맥류, 두드러지는 증상 없어도 치료 필요한 증상은?

하지정맥류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정맥 내부에서 역류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 종아리 쪽으로 집중되어 발병하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혈관 돌출'이다. 평소와 다르게 다리 핏줄이 피부 바깥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일부 환자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 등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 없이 병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르는데,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증상을 늦게 발견할 위험성



김승진
센트럴클리닉부외과 대표원장

이 높다. 그러나 잠복성이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일뿐, 이미 정맥류가 진행되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무거워지며 자주 저리고 쥐가 나기도 한다. 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어 통증치료 관련 의료기관을 찾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가

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느끼고 내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치료를 미루는 행동은 오히려 수술의 난이도를 높이고 회복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할 때 내원하면 혈관경화요법, 압박스킹 요법 등 간단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증상이 꽤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역시 칼로 절개를 하여 정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했던 과거와 다르게 레이저, 고주파 수술 등으로 환자가 느끼는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은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걱정하면서 무작정 치료를 미루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여 1:1 진단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재발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 속 주의 사항에 관한 조언을 잘 지킨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오래도록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사설

대통령 이태원 '압사' 단어 빼라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급히 소집된 이 회의에선 사고 지원과는 관계없는 '명칭' 문제도 논의됐다.

회의 뒤, 참사를 명명하는 말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름바 '모바일 상황실'로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논의됐다. 이 방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소방본부,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재난거점병원별 재난책임자, 시·도, 응급의료기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 대화방에 '명칭' 관련 지시가 내려진다.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한다는 것이다. 참사 당일 112신고 내용에도 시민들의 입을 통해 수차례 등장했던 '압사'라는 단어였다.

이는 당시 사고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선 이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고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정부 각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된 것이다.

참사를 둘러싼 '명칭'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참사' 대신 '사고',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분향소의 공식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정해져 논란이 일었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지원에 매진해야 할 때, 정부 관계자들이 참사를 어떻게 부를지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건 참사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수습하기보다, 참사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10년 전 총기 난사 생존자 안아주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세인트마크 교회에서 열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당시 생존자를 안아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총기법이 30년 만에 통과됐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라며 돌격소총 금지와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을 거듭 촉구했다.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이 살해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알에서 부화한 수평아리 도살 멈춰라"



프랑스 동부 보호 단체 L214 회원들이 7일(현지시간) 파리의 농업부 앞에서 수평아리 인형을 살처분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수평아리 도살 금지 법안의 예외 규정 폐지에 항의하고 있다. 달걀 알에는 수평아리가 알을 낳지 못하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달걀 품종이 달리 알에서 부화한 후 살처분하고 있어 매년 약 5천만 마리가 죽임을 당한다. 프랑스 정부는 부화 전 달걀을 감별하는 방법만 허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업체들은 몇 가지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 내년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한 살로, 매년 1월 1일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는 나이보다 2살 적을 수 있어 그동안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 방식 차이로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져 왔다.

정확한 나이 계산이 복잡했던 것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는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화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만 나이 법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법이다.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서 잘 합의된 법안이 나왔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해 태어난 해는 0살로, 출생 후 만 1년 전에는 개월 수도 표시하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